

현장시선



박 동 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제주지역 기술인의 축제, 2021년 제 4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가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막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를 비롯해 5개 경기장에서 자동차 정비, CNC/밀링, 통신망분배기술 등 27개 직종 193명의 선수들이 그간의 갈고닦은 기량을 펼쳐 활약했다. 그 결과 총 93명의 우수기능인이 배출됐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신설된 산업융합분야에 집중되어, 최연소 입상자가 나오면서 제주도의 미래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은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제주 대표로 참가해 전국에서 모인 기능인들과 다시 한 번 기량을 겨룰 기회를 갖는다.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통신망분배기술 직종(한림공업고등학교)이 금·은·동메달을 석권하는 등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며 높아진 제주도의 기술 수준을 실감케 했다.
지난 2월 범 현대가 1세대 막내였던 KCC 명예회장이 별세했다. 평생 현장 경영 일선에서 강조한 것은 '산업보국'과 '기술입국'이었다. 건축, 산업 자재, 첨단소재에 이르기까지 기술 국산화만이 국가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경영철학이었다. '산업보국', '기술입국'이 지금은 생소한 구호가 됐지만, 이것은 1962년 시작된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때부터 전 국민 가슴 속에 파고들었다. 그 시절 정부예산은 청년들에게 기능 습득 의욕을 북돋우고 조국 근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전국·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1950년대의 국민소득 45달러,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나라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기술기능인들의 피땀나는 노력의 결과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통상 19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종합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1966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가 설립된 후 1967년 스페인 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 러시아 카잔 대회까지 30회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한국이 거둔 성적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기술선진국'이라고 인식하는 이는 드물다. 그것은 사회 저

변에 남아있는 기능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인재부터인가 기능대회 메달리스트들을 카퍼레이드하면서 영웅시하고 환호하던 기억은 사라져 가고 있다. 숙련기술의 중요성은 퇴색하면서 고교생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학력 중심의 사회가 돼버렸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변해야 한다. 스펙과 학력만으로는 취업과 성공의 삶을 보장받기 힘든 현실이다.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특성화고 기피와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가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했다. 우리 국민들의 손재주는 전 세계가 인정한다. 문화강국, 스포츠 강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보국, 기술입국의 세계 최강 기술강국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제주지역 우수기능인들의 대회 선전을 기대한다.

사설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에 총력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와 우리나라 해역이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다고 하지만 수백만t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제주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지방협의회는 14일 제주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반

환경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물론 전국적으로 반발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도량 포함돼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재처리해도 트리튬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본다. 트리튬이 수산물을 통해 인체에 침투할 경우 내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방사성 오염수 제주연안으로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만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에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100% 전기차 계획, '용두사미' 안된다

도내 모든 차량을 수년 내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계획이 '용두사미'로 빠져들고 있다. 2030년까지 전기차로 일괄 대체할 '100% 전기차 전환' 계획은 도내 전력 생산 100% 신재생에너지 대체와 함께 탄소 배출량 '0' 점을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정책 목표 중 하나다. 제주형 뉴딜계획의 핵심이기도 한 전기차 보급 계획이 최근 산적한 난제에 휩싸여 있다. 보조금 감소로 인한 보급 부진에다 주유소·정비소·폐배터리 처리 등 관련 과제는 해법마저 요원하다.
먼저 전기차 보급 목표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작년말 기준 누적 보급대수는 2만1285대에 그쳐 계획 목표보다 1만1142대 미달했다. 올해는 목표보다 7500대 줄어든 4292대 공고되고, 내년엔 목표대비 59% 감소한 6377대 보급 예정이다. 보조금이 몇 년 전 1대당 1800만원에

서 올해 1250만원으로 줄어든데다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 영향도 있다.
전기차 확산이 가져올 관련 업계 생산, 폐배터리 활용 등 이미 나온 과제는 여전히 가시적 해법을 못 내놓고 있다. 주유소·정비소 등 출몰업에 따른 폐업 비용 보상에, 업종 전환 등에 대한 대책은 당장 실질한 상황이다. 폐배터리 처리문제도 심각하다. 올해부터 1000대 이상 회수 예정이고 내후년부터 2000~3000대를 웃돌 예정이지만 도내 처리대수는 연내 중축공사 물량까지 합쳐야 700대에 불과하다.
도가 전기차 보급 성과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홍보에만 치중해선 안된다. 도는 전기차사업 계획의 전면 수정에다 파생될 수 밖에 없는 여러 과제들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도민들은 '화려한 도정홍보'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는 '알뜰 도정'을 더 원하고 있다.

열린마당

"펜안 하우파?" 기동 봉사단이 찾아갑니다



문 정 희
제주시 상하수도과

세계의 과학자들은 인류의 위대한 업적 중 가장 중요한 전기, 항공기, 자동차, 상하수도 등이 있다고 한다. 이 중 상하수도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가장 위대한 기술인 것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에서 들어와 하수도로 나간다.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으면 씻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으며, 화장실 사용 등에도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 안 되는 필수적인 물을 절약하고 수질을 깨끗하게 해 자원을 재이용하게 되면 예산 절감은 물론 환경도 보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서도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하수도 시설 정비로 침수 등

재해예방과 지하수 오염방지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상하수도 사고 발생 시 응급 조치 및 복구를 위한 "펜안 하우파?" 기동봉사단을 운영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펜안 하우파?" 기동 봉사단은 50여명의 봉사단이 상하수도 24시간 현장 대응 체계 유지 및 어려운 이웃 안부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상하수도 전문요원 11명이 단수, 급수불량, 악취 등 각종 생활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안부 나누기 사업은 검침직원 40여명이 매일 검침하면서 코로나19로 멀어진 어려운 이웃에 안부 등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상하수도 직원이 참여하는 잔돈 모으기로 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어려운 가구 수도꼭지 교체 등 소규모 상하수도 시설물 무료 정비 봉사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펜안 하우파?" 기동 봉사단은 상하수도 생활불편을 찾아서 해결하고 코로나로 더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데 함께 하겠다.

뉴스-in

제주 분양가 상승폭 눈에 띄어

'상호존중의 날' 지정·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직원 간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를 담아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어 눈길.
4월 상호존중의 날엔 5대 실천과제를 선정(▷배려하는 언어 사용 ▷책임감 있는 업무 자세 ▷직원 간 사생활 존중 ▷건전한 회사문화 ▷부당업무 지시 근절)해 직장 내 배려와 존중 문화가 스며들도록 임직원 모두가 힘을 쓸 것을 다짐.
문대림 이사장은 "조직문화 혁신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
고대로그자
가격상승 기대감... 매물 거둬
○...제주에서 최근 늘어난 민간아파트 분양가로 주거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 분양가는 전국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눈에 띄는 상황.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최

근 1년간 도내 평균분양가격은 3월 기준 평당 719만원으로 1년 전보다 82% 올라 전국평균 상승률(14.2%)을 크게 웃돌고, 올 2월과 비교해도 38.5% 상승.
도민들은 "고가 아파트 분양 후 시장엔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팔겠다고 내뉘던 것을 거둬들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언.
로미속기자
지역주택조합 상담센터 개설
○...제주시가 관내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실태를 중간점검 결과 일부 부실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다각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
시는 부서 내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명확한 자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 및 검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결정한 조합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 행정에서의 점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조합원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이호준 아버지 전주이공 균철(향년 82세)께서 서기 2021년 4월 15일 10시 1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4월 16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4월 17일(토요일) 오전 6시 4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양지공원→고산 선영
부 인 설정 자
아 들 이호준 며느리 김현영
딸 이윤실 사 위 신교진
정 립 김정구
주 연 은자
정 민 은경

부 고
강성수(前 제주도청) 어머니 남양 흥씨 기원(조수교회 권사, 향년 93세)께서 서기 2021년 4월 15일 05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4월 16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4월 17일(토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3층 302호 분향실
▶장 지: 조수교회 연합 공동묘지
남 편 강공남
아 들 강성수 며느리 김동렬
딸 강은정 사 위 박승철
은숙 양상근
은자 최용성
은경 김현철

부 고
고인택(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제주지사장) 아버지 제주고공 균훈(前 교장·향년 89세)께서 서기 2021년 4월 15일 07시 0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4월 16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4월 17일(토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한동리 선영
아 들 고인택 며느리 공용선
기택 김양숙
영남 장영희
경남 안언남
딸 고화옥 사 위 탁태식
※ 연락처 : 고인택 010-6482-1993
고기택 010-5420-5345
고영남 010-3111-5550
고경남 010-5584-9306

태양광 설치
◎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
◎ 건물(상업용)
◎ 발전사업 & 유지보수
◎ 폐 태양광 철거 & 리파워링
Haenuri Energy Co., Ltd.
(주)해누리에너지
http://해누리에너지.com
T. 712-8081
방수 단열
우 리 탄
우 리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제주도정소식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안내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안내
○ 신청기간: (온라인) 4/12(월)~4/21(수), (오프라인) 4/15(목)~4/21(수)
※ 4/15(목)~4/16(금) 양일간은 홈페이지 접속 운영
○ 지원대상: 기존 지원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자격요건 *①~③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0. 10 ~ 11월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발생,
② '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③ '21. 2 ~ 3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대비 25%이상 감소
○ 접 수 처: (제주시) 제주고용센터 지하 1층, (서귀포시) 서귀포고용센터 4층
○ 문 의 처: (제주시) 064-710-4222-4226, (서귀포시) 064-710-4438-4439
○ 유의사항: 접수창구 방문시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및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